

다음은 '꽃'을 제재로 한 시입니다. 내용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살피며 시를 감상해  
봅시다.

꽃

김춘수

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
그는 다만  
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

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
그는 나에게로 와서  
꽃이 되었다.

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 
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 
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.  
그에게로 가서 나도  
그의 꽃이 되고 싶다.

우리들은 모두  
무엇이 되고 싶다.  
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
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.



- 《시와 시론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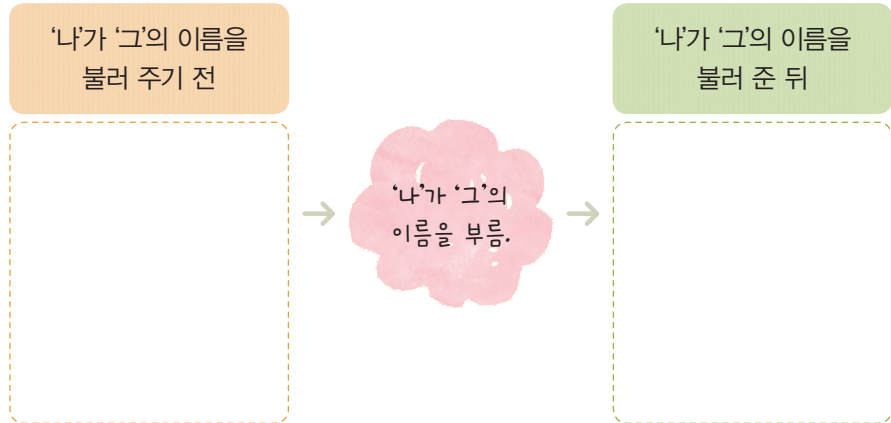


## 학습 활동

내용 학습

- 다음 활동을 하며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.

(1) 1연과 2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.



(2) 3연과 4연에 담겨 있는, 화자의 바람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.

3연에 담겨 있는, 화자의 바람

---



---



---

4연에 담겨 있는, 화자의 바람

---



---



---



목표 학습

# 1 시구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를 감상해 봅시다.

(1)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시에서 ‘이름을 부른다’와 ‘꽃이 된다’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봅시다.

“아니,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. ‘길들인다’는 게 뭐지?”  
 “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…… 그건 ‘관계를 맺는다’는 뜻이야.” 여우가 말했다.  
 “관계를 맺는다고?”  
 “물론이지.” 여우가 말했다. “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. 그래서 나는 네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.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고,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.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.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. 난 네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…….”  
 “이제 좀…… 알 것 같아.” 어린 왕자가 말했다. “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……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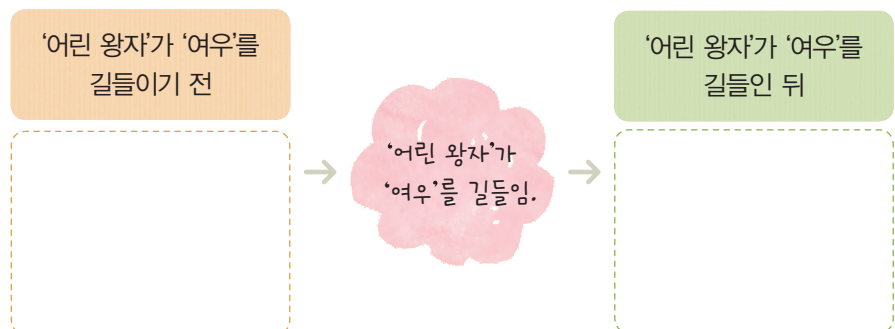
— 생텍쥐페리, 《어린 왕자》



①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.



‘길들인다’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아요.



② ①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‘이름을 부른다’, ‘꽃이 된다’의 의미가 무엇일지 말해 봅시다.

